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제안

2025. 3. 18.

손 태 홍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

- Winston Churchill -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



*건설산업은 물리적 공간 조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담아내고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이며,
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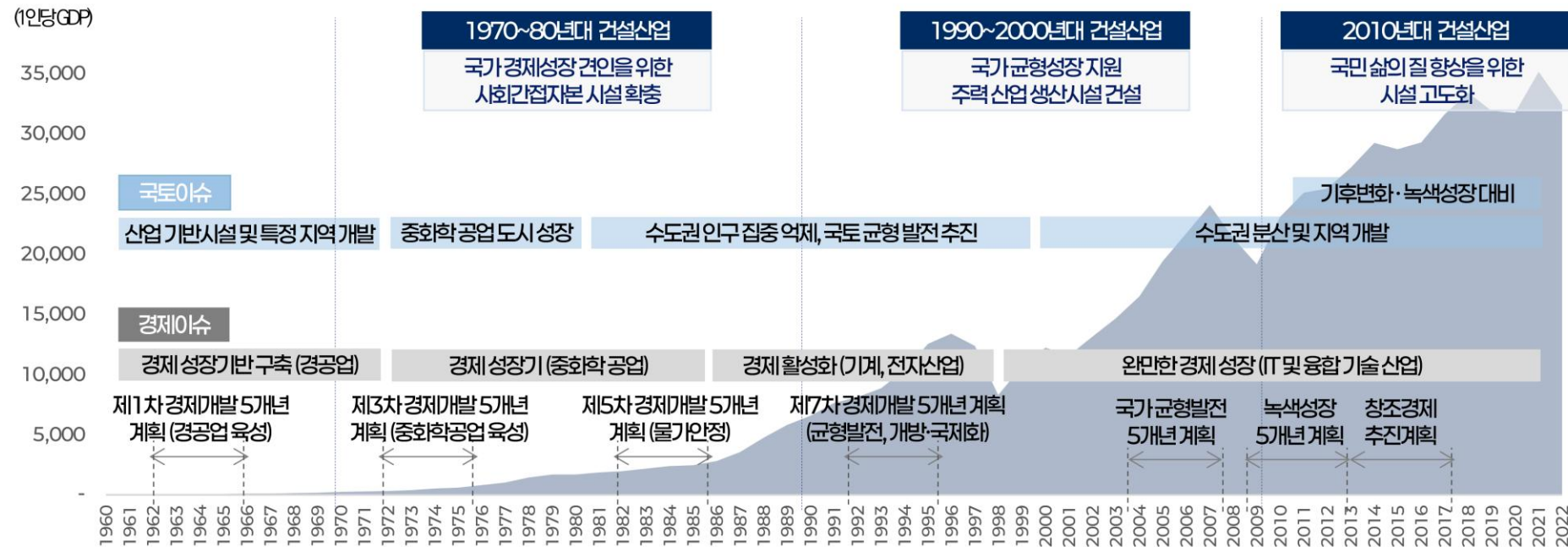
목차

- 01 건설산업은 미래산업이 될 수 있는가?
- 02 건설산업은 왜 미래산업이 될 수 없는가?
- 03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제안

1 건설산업은 미래산업이 될 수 있는가?

■ 국가기반시설·산업 전반의 활동 기반 구축 및 국가 경제·산업 성장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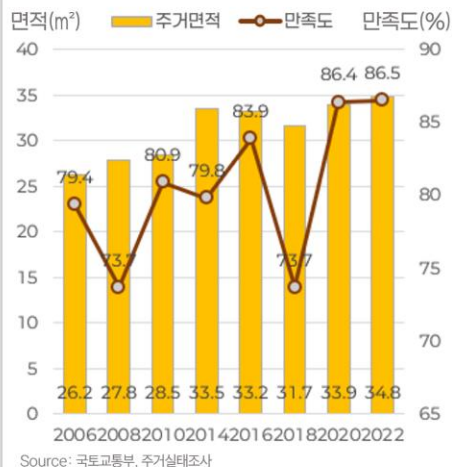
- 경제성장시기 국가 개발전략 역할 : 도로, 철도, 항공, 교통 인프라 및 플랜트 등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
- 1977년 해외건설은 국가 총 수출의 30%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성장 견인
- 시대에 따라 주력 산업은 변화했으나, 건설산업은 시대별 주력 산업의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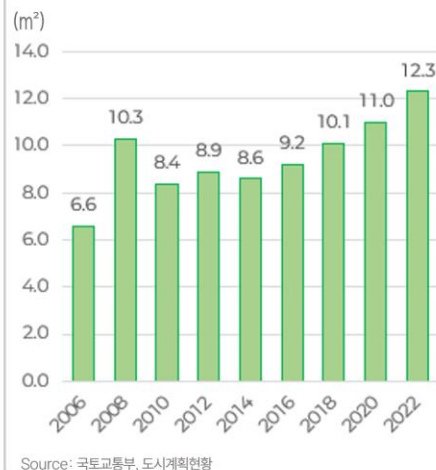
■ 더 쾌적한 주거환경, 더 편리한 교통, 더 살기 좋은 도시 건설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 과거 양적 성장에 대한 기여는 현재 국민 삶의 질적 성장에 대한 기여로 전환 : 주거환경 만족도는 79.4%(2006) → 86.5%(2022)로 향상, 1인당 주거 면적은 26.2m²(2006) → 34.8m²(2022)로 증가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 지속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6.6m²(2006) → 12.3m²(2022),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2.9개(2006) → 6.0개(2022),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40.7%(2006) → 82.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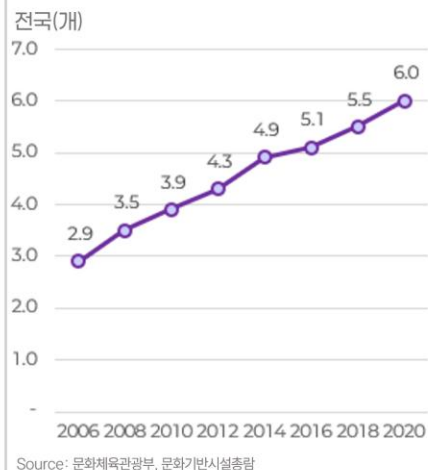
주거환경 만족도 및 주거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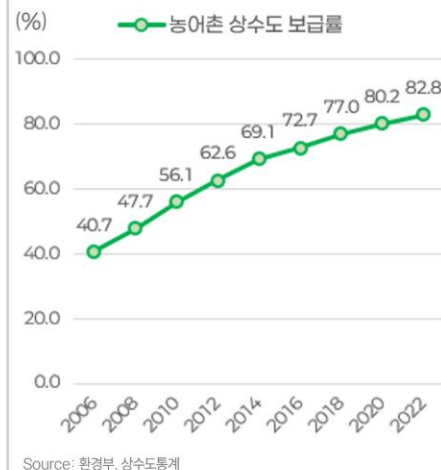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건설사업은 복잡한 공종·기술·자재·인력과 다양한 산업이 연계된 종합 생산과정

- 시설물을 구성하는 세부공종별 다양한 자재 및 대규모 인력 투입, 광범위한 전·후방산업과 연계

■ 전 산업과 국민은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 건설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건설의 기획·발주·설계·구매조달·시공·유지관리에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생산) 다양한 건설사업 투입 요소



(산업) 건설 및 관련 전·후방산업

종합건설기업 19,516개사
전문건설기업 64,477개사
건설ENG기업 4,050개사
전·후방기업 건축기술·ENG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9,416개사 창고·운송 서비스업 22,917개사 육상운송업 551,452사 ...

Source: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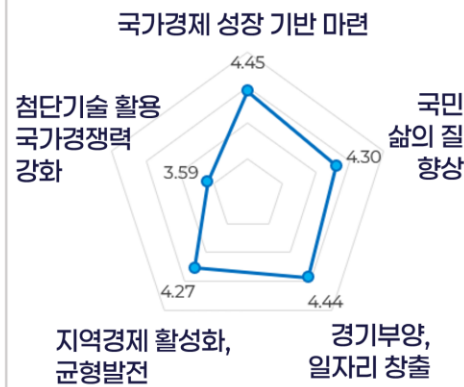
(주체) 건설산업의 폭넓은 이해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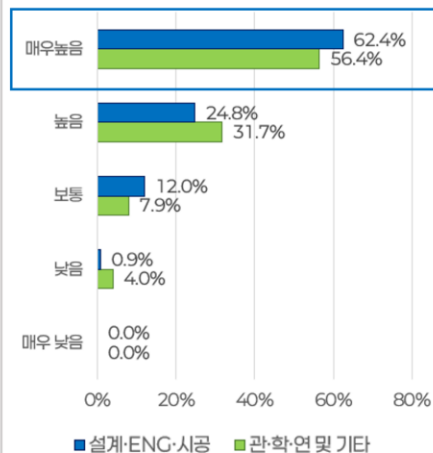
■ 건설리더는 건설산업이 ①위국가경제 성장 기반 마련, ③위인프라 공급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②위경기부양·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혁신에 대한 건설리더 인식조사'에서 건설리더 218인의 응답
- 건설산업이 경제, 국민 삶, 일자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업 혁신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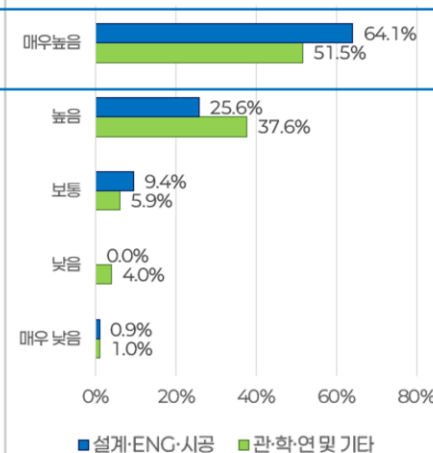
건설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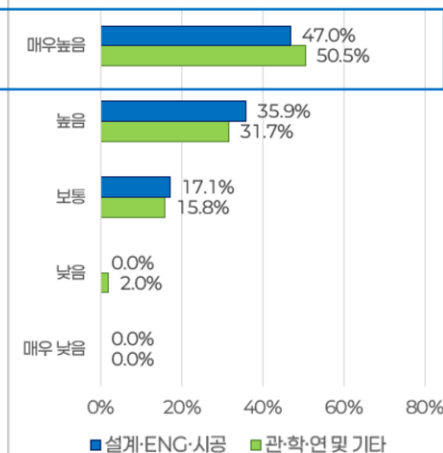
1위 국가경제 성장 기반 마련



2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3위 인프라 공급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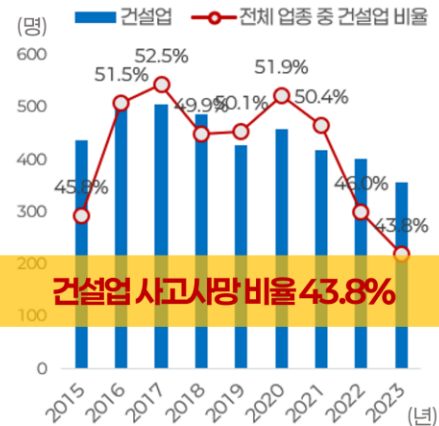


■ 건설산업은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높아지는 국민 기대 & 타산업과의 경쟁력 격차 확대

- (안 전)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건수 감소 →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 (품 질) 건설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여전히 부실시공, 하자 등 품질 이슈 발생
- (생 산 성) 다른 산업과의 생산성 격차 확대 → 영세화 및 저 부가가치화 우려
- (기술투자) 첨단기술 확산 속도가 더딘 성향 →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기술분야에서 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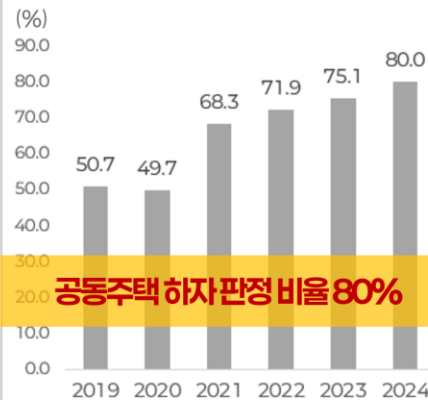
물량 중심의
과거 성장 방식은 지속 불가
→ 미래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 방식 필요

건설업 사고사망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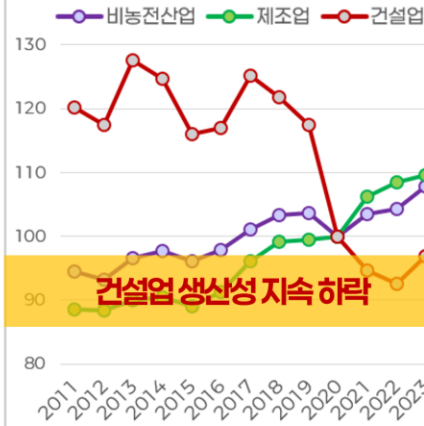
Source: 안전보건공단(각 년도), 통계로 보는 산업재해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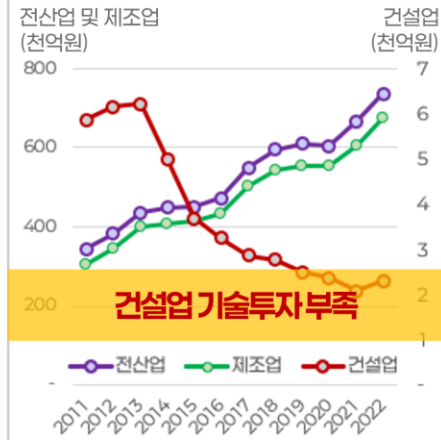
Source: 국토교통부(2024년은 8월까지의 집계 결과)

건설업 생산성 동향



Source: 한국생산성본부

건설 기술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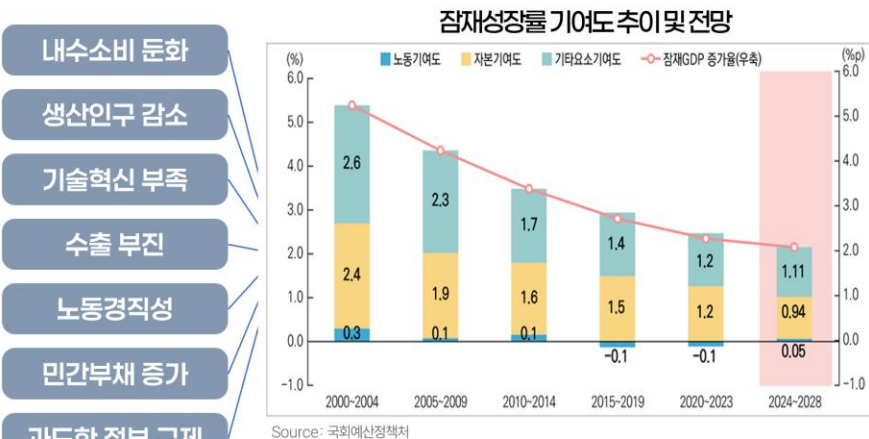


Source: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 성숙기에 들어선 국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 현재 성장방식으로 대응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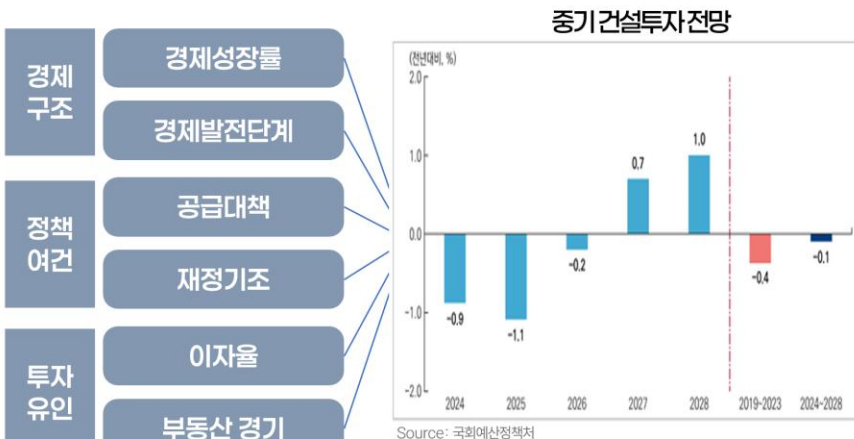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감소, 소비와 투자 위축, 고용창출 부족의 시대 도래 : 내수소비 둔화, 생산인구 감소, 기술혁신 부족, 수출 부진, 노동 경직성 심화, 민간부채 증가, 과도한 정부 규제 등이 저성장 요인 (매경Economy, 2025.1)
- 잠재GDP성장률 지속 감소 전망 : 5.3%p^(2000~2004) → 2.1%p^(2024~2028)
- 2024~2028년 건설투자 연평균 0.1% 감소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SOC분야 예산안 축소 및 관련 선행지표 부진 영향

잠재성장률 전망



- 내수소비 둔화
- 생산인구 감소
- 기술혁신 부족
- 수출 부진
- 노동경직성
- 민간부채 증가
- 과도한 정부 규제

중기 건설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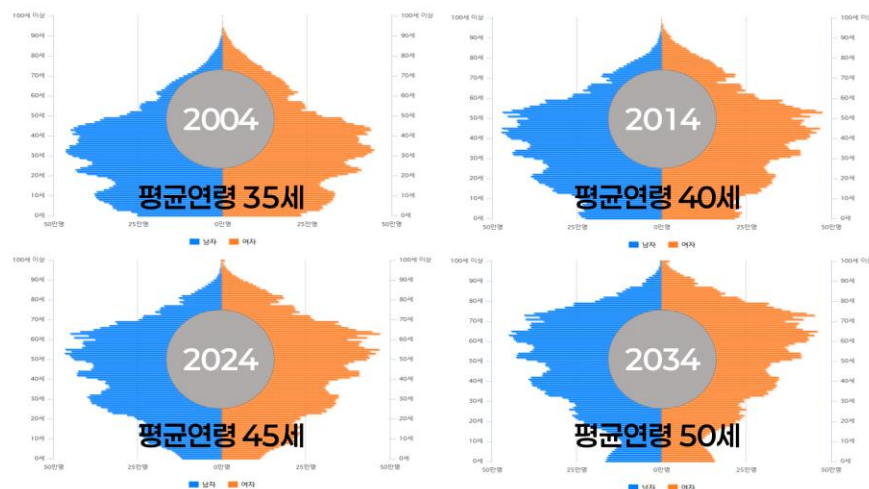


- 경제 구조
 - 경제성장률
 - 경제발전단계
- 정책 여건
 - 공급대책
 - 재정기조
- 투자 유인
 - 이자율
 - 부동산 경기

■ 인구 보너스(Bonus)에서 오너스(Onus) 시대로 ➡ 노동력에 기반한 산업 성장 불가능, 대응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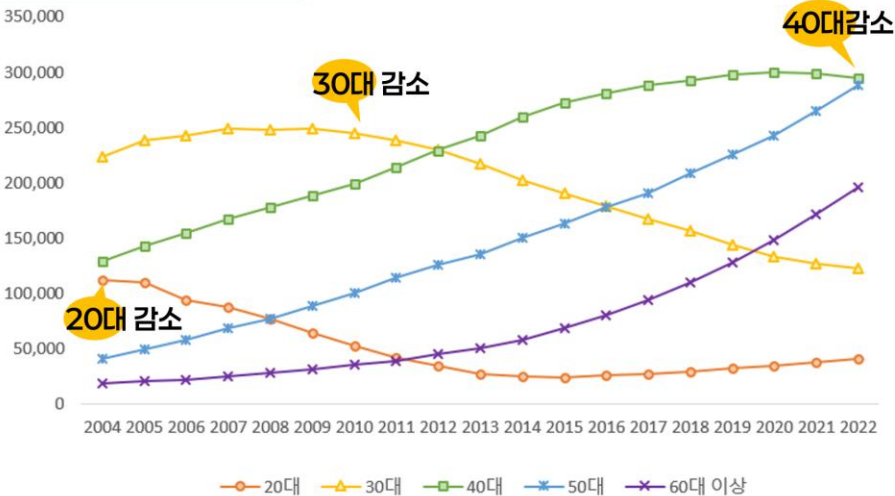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인구 오너스 시대 진입
- 인구 오너스 시대에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 지체
- 건설기술인력의 연령구조는 인구구조보다 더 급격한 양상으로 변화 : 20대 감소(2004), 30대 감소(2009), 40대 감소(2022)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Source: 국가통계포털

연령별 건설기술인 규모



Source: 건설기술인통계(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급격한 첨단기술 발전에 직면 ➡ 현재 역량으로 대응 가능한가?

- 글로벌 건설시장에서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AEC) 기술의 급속한 성장 진행 (McKinsey&Company, 2023) → 기술발전을 따라잡는 준비 필요
- 국내에서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중이나, 건설산업 전반의 투자와 성과는 부족

글로벌 건설 스마트 기술 투자 추이

Source: McKinsey&Company(2023), Accelerating growth in construction technology

- 투자 규모 (중앙값)
- 투자 후 기업 가치 (중앙값)

건설(AEC) 기술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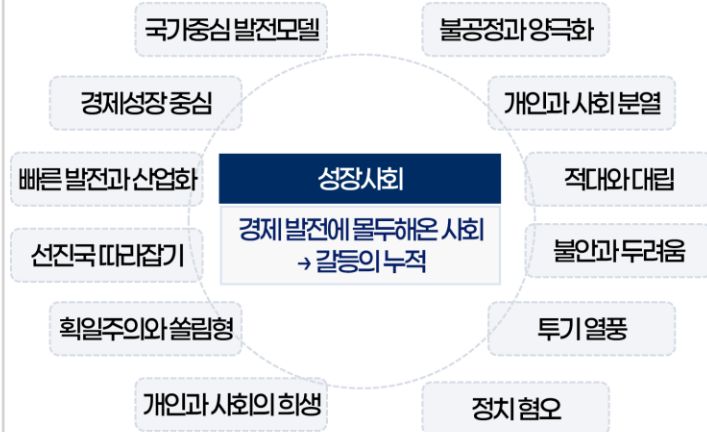


국내 건설기술 관련 정부 정책 동향

■ 소득·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 눈높이 상승,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 대응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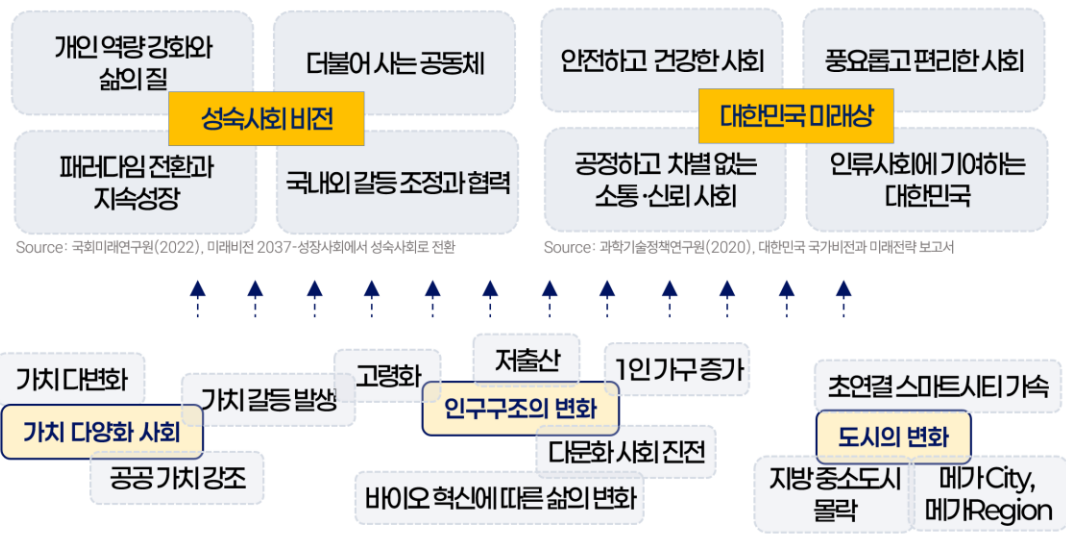
- 국가 주도의 양적 성장을 중시하던 과거 '성장사회'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성숙사회'로 변화 중
-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가치 중심,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산업·소비·문화 전반의 변화 예상 → **건설산업 가치 변화와 연결**

성장사회 문제점



Source: 국회미래연구원(2022), 미래비전 2037-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미래사회 이슈와 기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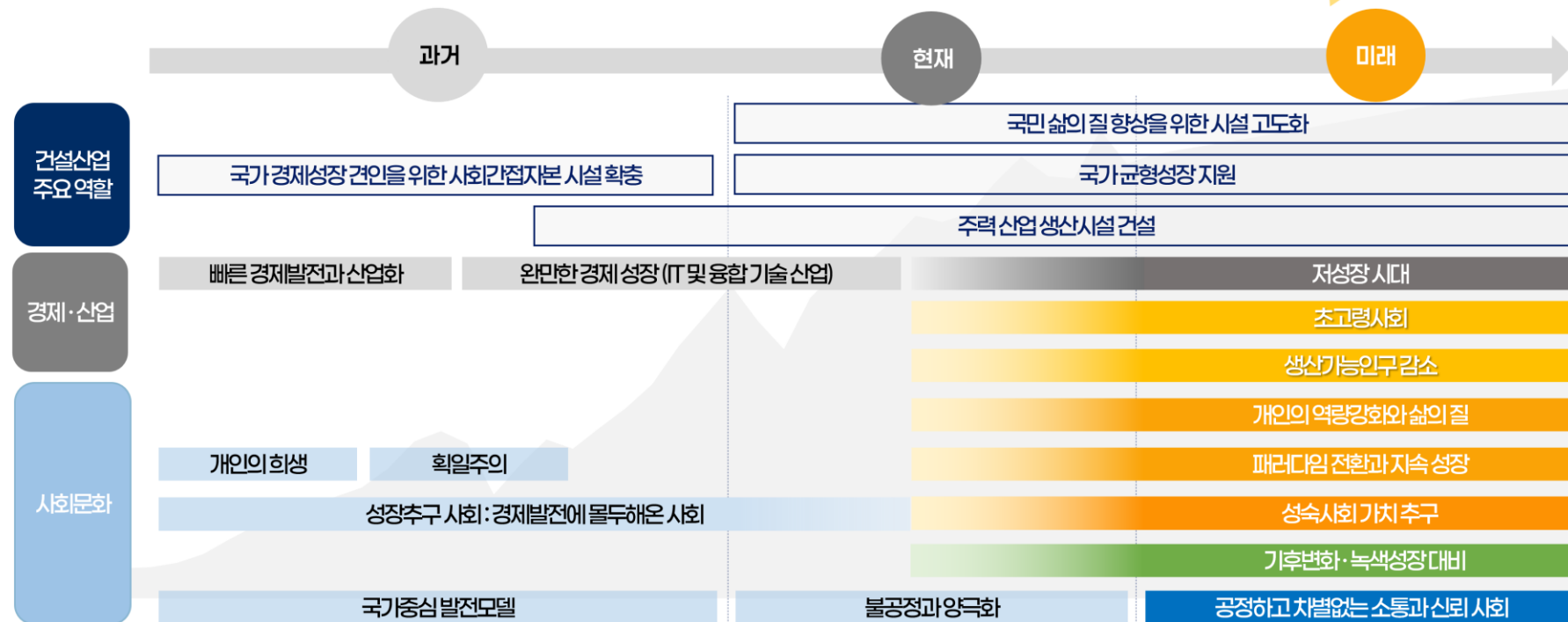
Source: 국회미래연구원(2022), 미래비전 2037-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Source: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 건설산업의 문제·위기는 기존 성장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

- 최근 건설산업 환경 변화 : 저성장 경제 진입, 인구 부족, 기술 대응 부족, 국민 눈높이 향상
- 새로운 역할과 성장방식 요구, 미래산업으로써 역량 확보 필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2 건설산업은 왜 미래산업이 될 수 없는가?

■ 과거에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대책·전략 추진 지속 ➡ 왜 위기는 반복되는가?

- (공공) 중앙부처 및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건설혁신 전략 추진, (민간) 건설산업의 위기와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
- 건설 비효율성, 시장 양적 성장 한계, 생산체계 경직성, 기술 경쟁력 약화 등 문제 인식 → 현재도 지속되는 문제

공공 및 민간의 건설혁신방안 및 대책

정부/공공

1999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2004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2006 한국건설산업 미래혁신전략

2007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계획

2008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2016 건축산업의 미래이슈와 대응전략연구

2018 건설산업 혁신방안

민간(연구기관 등)

2003 한국건설 비전 2025 구상
건설산업의 장기비전설정 및 세부전략

2005 대한민국 건설산업 Vision 2025

2010 한국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

2012 문화지체에 빠진 건설산업

2013 건설의 길을 묻다

2016 건설 새 판을 짜자

2020

과거 혁신방안의 건설산업 문제인식

- 도시부조화, 고유의 정체성 부족
- 품격 낮은 건축물·시설물
- 고부가가치 영역 확대



- 비효율적인 공공건설사업 관리
- 단단계 하도급과 부실업체 난립



- 기술 경쟁력 약화
- 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 차질
- 인력양성 시스템 부재

공통적인 문제인식



- 국내·해외 건설시장 양적 성장 한계
- 해외 경쟁력 약화 추세



-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제도
- 경직된 생산체계
- 변별력이 부족한 입찰제도
- 투명·공정 경쟁질서 정착 미흡

■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반복 추진에도 문제 지속 ➡ 왜 해결되지 않는가?

- 현상 해결에 집중, 산업 전반의 변화 동력 부족, 종합적 의사결정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 → 혁신 노력의 지속 부족
- 구조적·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컨트롤타워** 및 건설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 **건설문화·가치** 혁신 필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2004)

-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 성장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확충

건설기술·건설문화 선진화(2007)

- 건축문화 혁신 기반 조성
- 공공선도 프로젝트 시행
-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스탠다드 생산체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2008)

- 분권·책임·성과 공공발주시스템 혁신
-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관계 혁신
- 투명성 제고와 부패척결
- 세계일류산업으로 도약기반 조성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

- 기술혁신
- 생산구조 혁신
- 시장질서 혁신
- 일자리 혁신

건설산업 혁신이 지속되지 못한 원인

1

근본적 문제 개선보다 현상 해결에 집중

- 추진 정책의 효과가 평가되지 않고, 일회성 제도 개선으로 진행

2

산업 전반의 변화 동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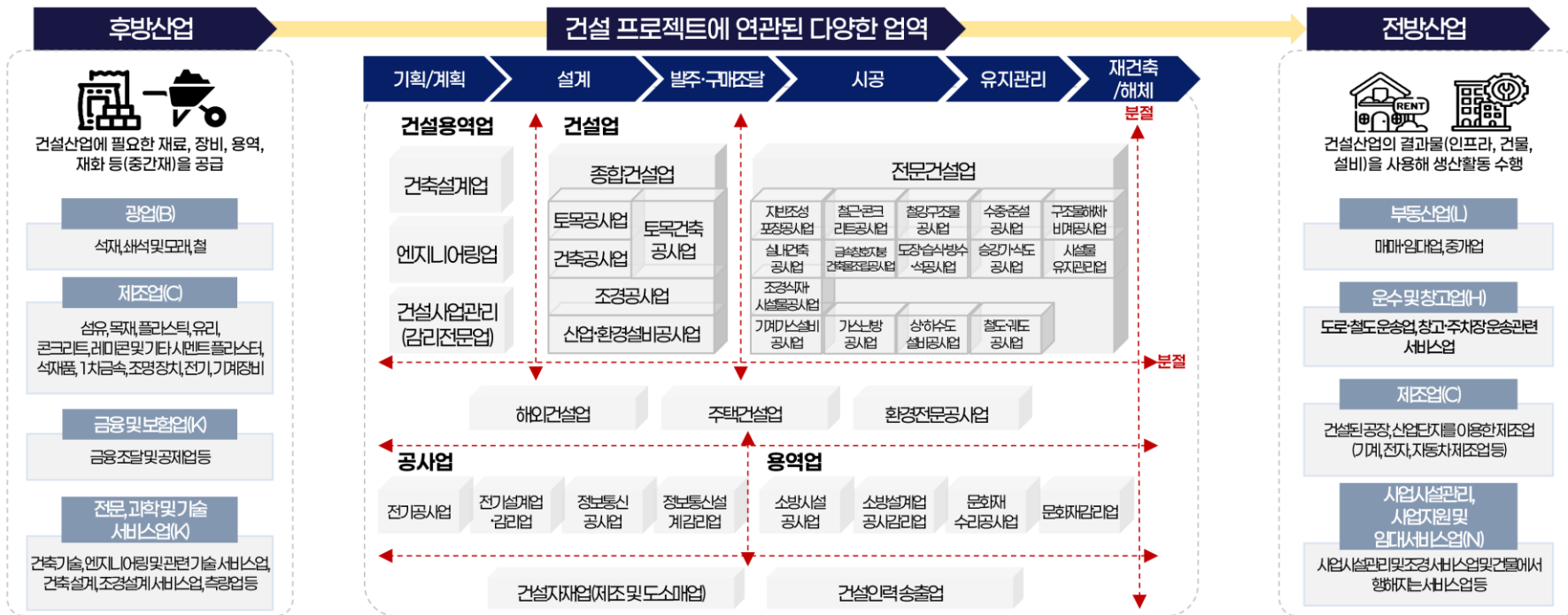
- 혁신 방안이 건설산업 일부 주체의 변화에 그치고,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생산방식 개선, 관행 개선으로 연결 부족

3

종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 일부 제도, 개별 부처의 업무 개선에서 나아가, 이해상충한 다양한 의견의 협의·조정 필요 → 국가차원 총괄 기관 필요
- 혁신 성과가 가장 뚜렷했던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²⁰⁰⁷⁾의 경우, 해당 위원회가 대통령자문기관으로 역할하고, 이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건축위원회로 활동

- 건설산업은 자재·장비, 재화·서비스 등의 후방산업부터, 부동산업/운송업/제조업 등의 전방산업까지 연계된 복합산업
- 건설산업 내에서도 업역 간 본질로 한 프로젝트에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하며 건설산업의 복잡성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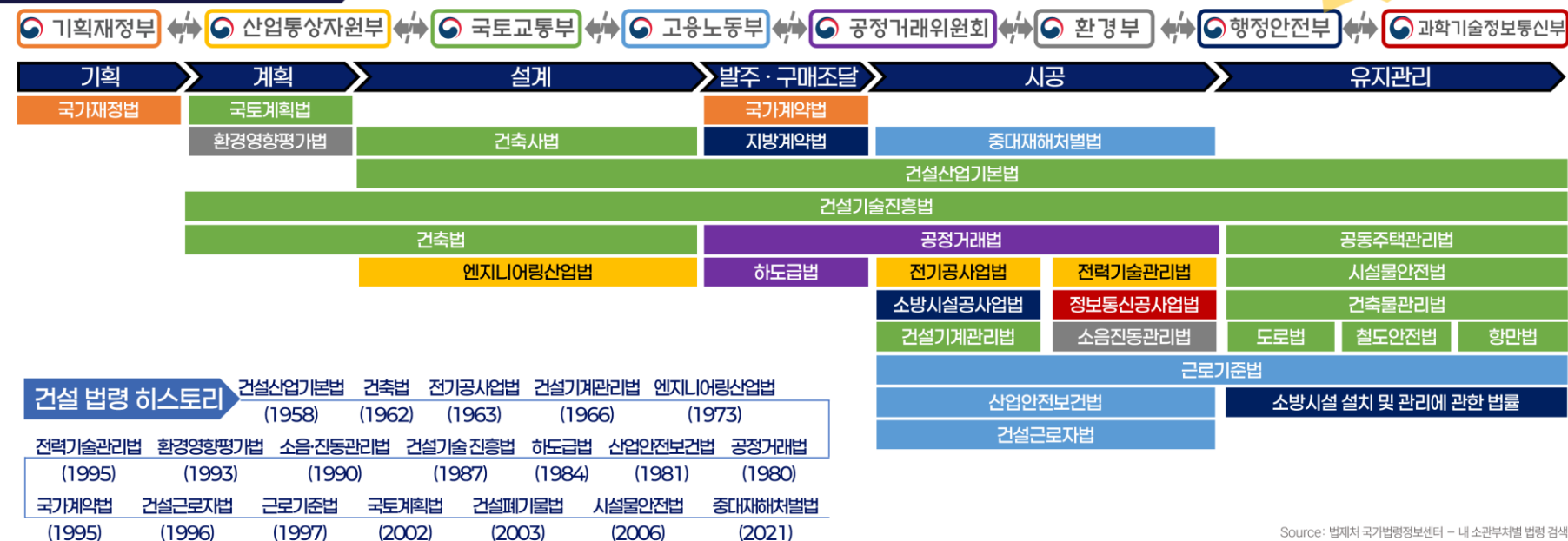


■ 단계 및 부문별 다수 부처 연관, 개별적 법·제도로 규제 ➡ 건설산업 통합 및 생산체계 혁신 제약

- 건설관련 부처 간 분리된 업무는 일관된 정책 운영 차질,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 저해, 통합을 통한 혁신 및 부가가치 창출 한계로 작용
- 법률에 기반한 실효성이 낮은 징벌적 규제의 양산으로 민간시장 자율성 저하 등 부작용 발생

부처 간 의사소통 단절/
통합 컨트롤 타워 부재

건설사업 관련 법·제도 및 부처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내 소관부처별 법령 검색

■ 건설산업의 분절 심화는 참여주체들의 대립을 야기하며, 학문간 융합과 인재 양성 저해

- 전문분야 간 유기적 연계 및 생산체계 통합 취약, 산업 전반의 이익을 위한 협력 부족
- 대학 내 학과 및 커리큘럼별 분화로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 양성 부족

건설산업 관련 기관 및 협·단체



Source: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 소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설 관련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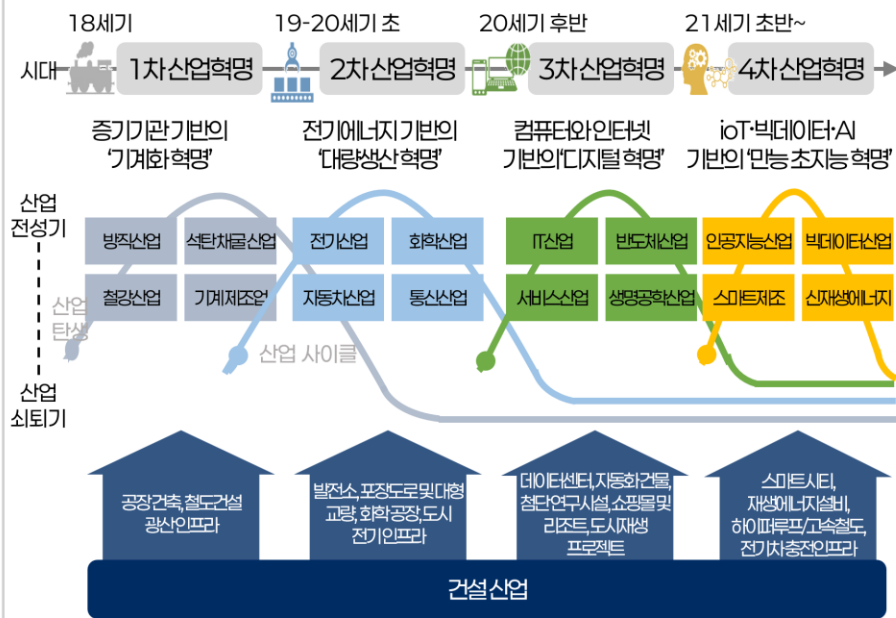


Source: 대학알리미

■ 정부 주도 기술개발 및 적용 노력에도 제도적 기반 부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 미흡

- 개별 기술 우선주의에서 벗어난 분절적 가치사슬 개선/기술 활용 및 대가 기준 확보/인력양성 등 생태계 차원 접근 미흡

1~4차 산업혁명의 발판이 된 건설산업



타 산업의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역할 + 자체적인 기술력 보유

건설 사업의 특징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의 한계점



■ 내수 활성화와 장기적 성장동력의 수단이 되는 주택·도시·금융 분야 시장·상품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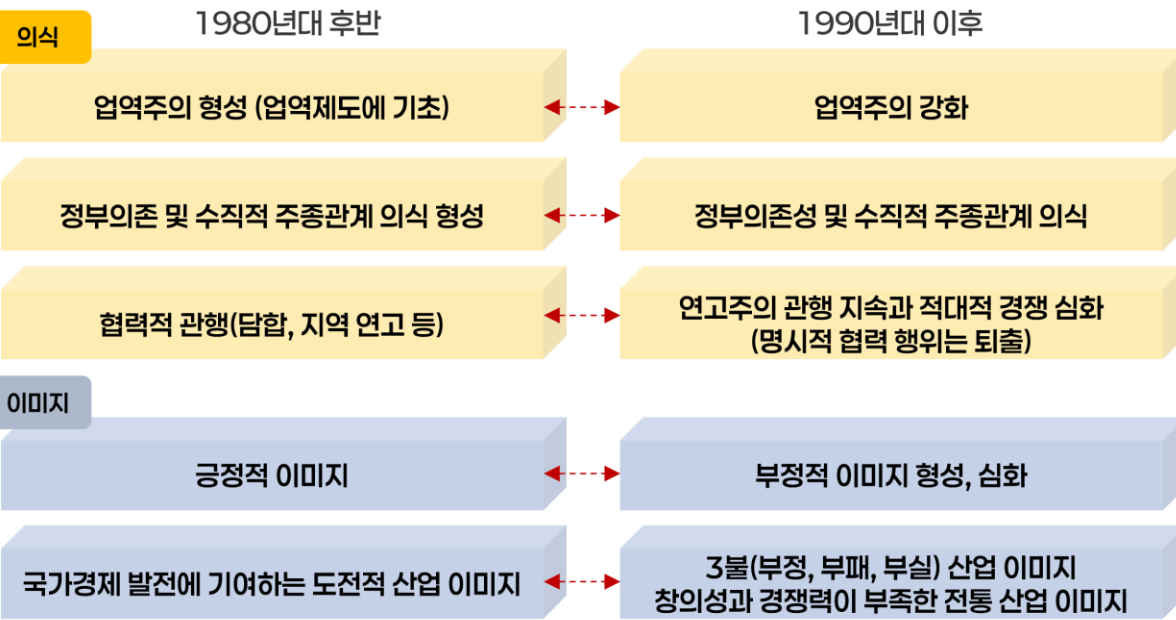
- 주택분야의 수요공급 대응 실패, 도시분야의 복합 개발 및 변화 대응 부족, 금융분야의 부채 증가 및 고위험화 등의 문제점 발생
-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해결 과제 시급



■ 경제성장, 삶의 수준 향상, 다양성 증가 등 사회환경은 변화했지만 건설산업의 문화는 지체

- 1990년 이전 성장산업으로서의 가치에서 성숙산업의 가치로 변화 필요
- 업역주의는 분절·파편화를 가속시키고 수직적 주종주의는 공생발전(공정경쟁, 상생협력) 저해

건설문화의 변화



지체된 건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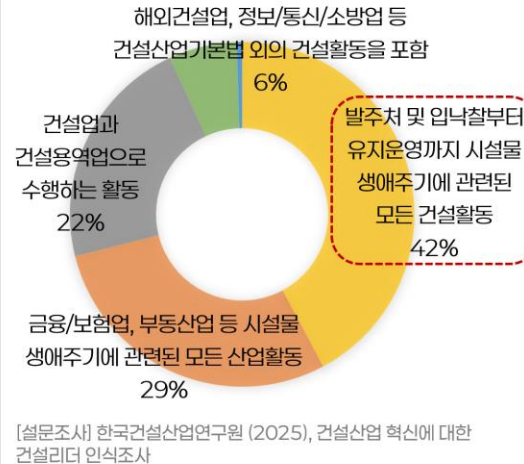


Sour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문화지체에 빠진 건설산업

■ 건설산업 본연 가치 상실 ➡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의 가치 재인식 필요

- 건설산업 리더들은 시설물 생애주기에 관련된 모든 활동(42%)과 금융·보험·부동산업 등 관련된 모든 산업활동(29%)을 건설산업으로 인식

건설리더의 인식



시설물 생애주기에 관련된 모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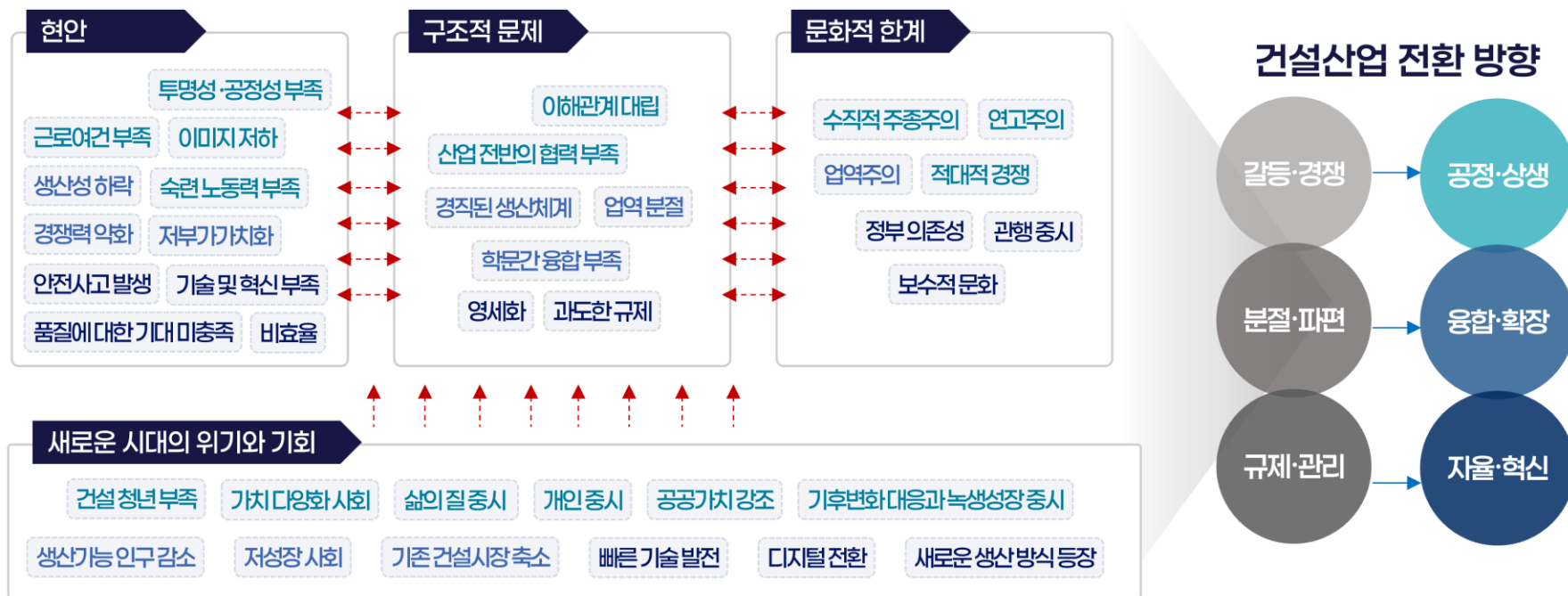
건설과 관련된 모든 산업활동



건설(建設)은
인류 최초 주거지
형성부터
21세기까지
동시대 문명의
발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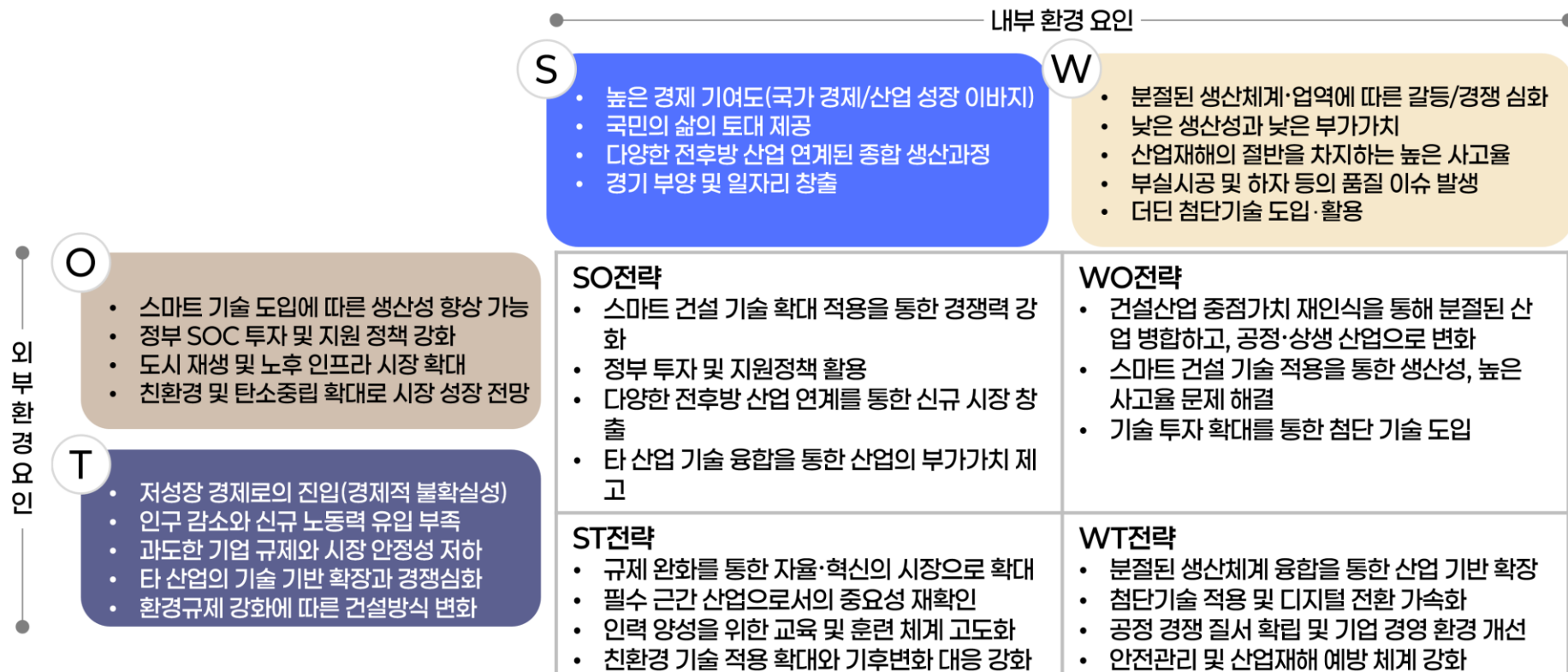
■ 갈등·경쟁, 분절·파편, 규제·관리 ➡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으로 건설 패러다임 전환

-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이 되기 위해 업역, 부처, 조직의 경계를 넘어, '나'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3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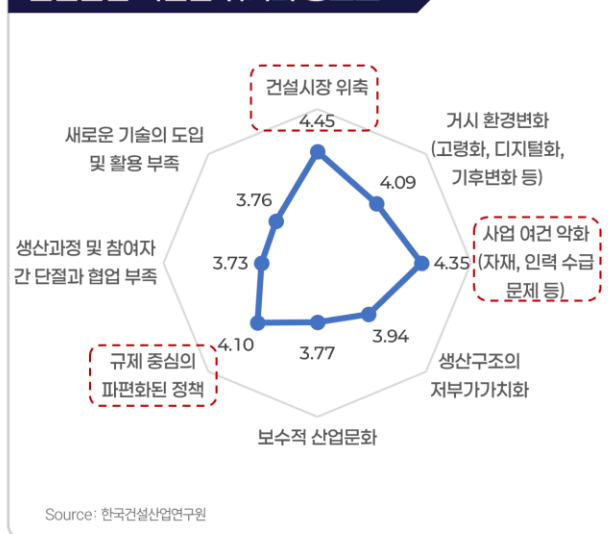
■ 건설산업의 강점·기회 극대화 및 약점·위협 최소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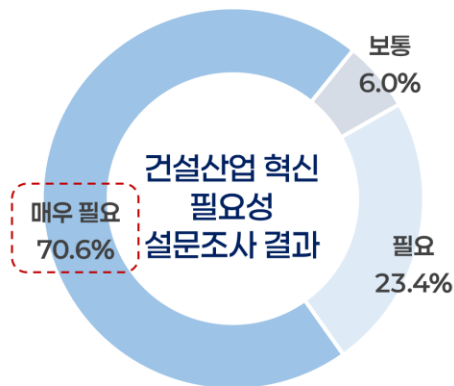
■ 현안 대응식 문제해결방안의 한계 ➡ 미래 지향·지속가능한 근본적 해법 필요

- 과거 건설산업 발전을 이끈 생산체계, 생산방식, 제도·기술, 상품·비즈니스 모델, 건설 문화는 한계 도달
- 건설산업 혁신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 형성
- 공공 건설투자 축소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물량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면적 전환 필요

건설산업 직면한 위기와 중요도



건설산업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SOC 예산 추이(예산현액 기준)



■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 재탄생’의 비전 아래 4Re 산업으로 전환 추진

- 4Re 산업: 책무를 다하고(Responsible), 혁신을 추구하며(Revolutionary),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Reliable) 도약하는(Resilient)
-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의 3대 원칙과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 ‘산업체계 대전환’, ‘건설시장·상품 대전환’의 3대 전략분야 설정



비전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 재탄생



목표

4Re 산업으로 재탄생

책무를 다하고
(Responsible)

혁신을 추구하며
(Revolutionary)

신뢰를 바탕으로
(Reliable)

도약하는
(Resilient)



3대
원칙

공정 · 상생

갈등·경쟁 산업에서
공정·상생 산업으로

융합 · 확장

분절·파편화 산업에서
융합·확장 산업으로

자율 · 혁신

규제·관리 산업에서
자율·혁신 산업으로



전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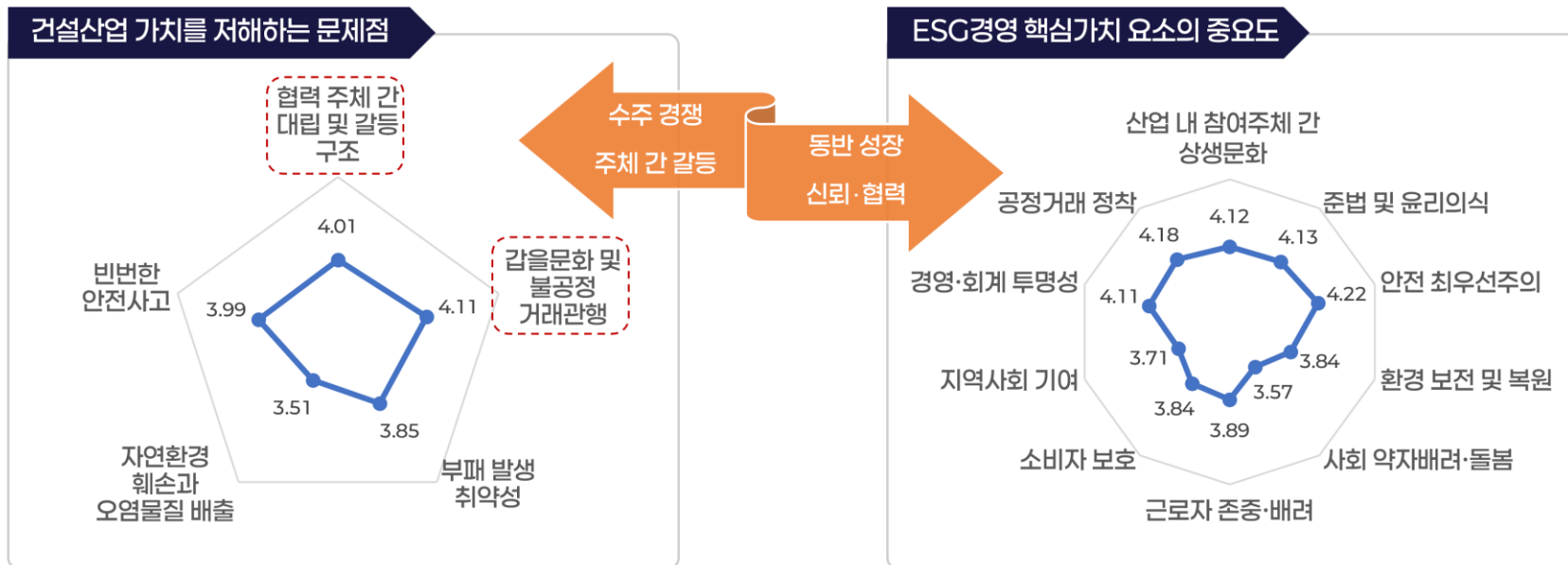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

산업체계 대전환

건설시장·상품 대전환

■ 경제 성과를 위해 경쟁·갈등을 반복했던 산업 ➡ 공정과 상생의 산업으로 전환

- 수주 중심으로 기업 간 경쟁을 피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입찰·계약·생산 단계 등 불공정에 취약
- 건설산업의 주체로서 부여된 책임·역할 이행, 사회문화 혁신(예. 관행 타파), 행태 변화(예. 개인의 의식 변화)를 통해 공정한 산업 이미지 구축 필요
- 비용·시간 효율을 중시하는 수직적 원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다양한 사업주체가 협력·상생하는 구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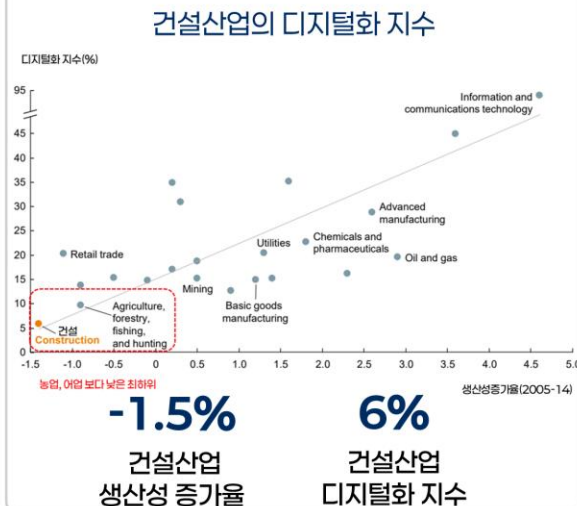
- 법령 및 생산체계의 분절 극복, 건설산업 범위 확장과 디지털 전환, 스마트 건설을 토대로 미래산업으로 융합 및 전환 필요



■ 규제·관리 중심의 경직된 산업에서 ➡ 자율과 혁신 추구 산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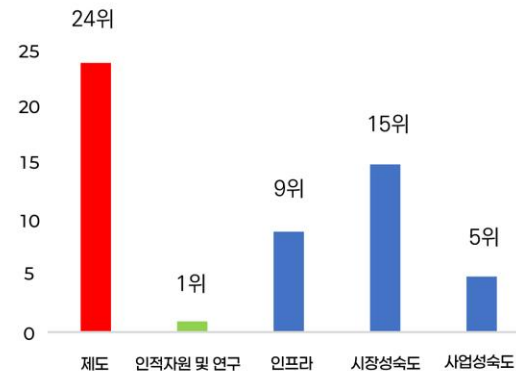
- 국민의 안전과 삶의 밀접한 산업으로 과도한 규제 중심 관리 지속 →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 환경과 기술 혁신 대응에 취약
- 기술 혁신 및 고부가가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혁신 산업**으로 전환
- 디지털 전환, 스마트 건설, 시장·상품혁신 등 산업계 스스로의 **생산환경 개선노력** 및 이를 위한 정부의 법·제도 개선 필요

건설산업 - 변화 대응 준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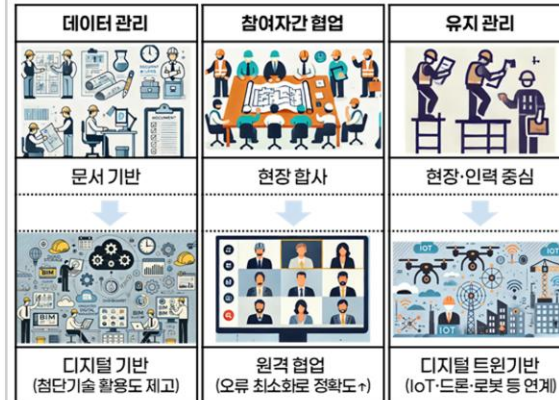
혁신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시장

2024 세계혁신지수(GII)-대한민국 종합순위



자율, 혁신 기반 스마트 산업으로 도약

기술(BIM) 중심 건설미래



■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①산업 중점가치, ②산업체계, ③건설시장·상품의 3대 전략분야 설정

-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3대 전략분야의 대전환 추진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

단기적 공급자 이익 우선주의로 인한 불공정 등 산업 비건전성 만연 → 지속가능한 이해관계자·수요자 공동의 가치 창출 및 산업문화 조성

핵심 가치

-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가치 공유, 수요자 관점의 경제적 가치 추구, 비재무적 가치 창출 성과 지향
- 윤리적 건설문화 정착, 장기 관점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가치 지향의 ESG경영 정착, 미래세대의 가치 존중



산업체계 대전환

분절된 산업체계, 규제 양산·강화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 →
규제개혁·스마트·상생 기반 산업체계 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신성장동력 확보

핵심 과제

- 산업 내 만연한 불공정 요소 개선과 건설규제 개혁
- 상생에 가치를 둔 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정비
- 융합과 확장 실현을 위한 미래 건설 업역과 산업구조 변화
- 스마트 건설활성화·연구개발 활성화·건설산업 공공조달 선진화

건설시장·상품 대전환



공급자 위주 도시·주택공급 및 도시·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미흡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
新시장·新상품 발굴

핵심 과제

- 주거비 안전 및 자산형성 지원,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 공급확대와 정책신뢰 확보, 신개념 정비모델 마련, 노후 인프라 투자
- 스마트 건설 금융 융합과 간접투자 활성화로 투자 생태계 확장
- 민간주도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스마트 기술혁신 기반 개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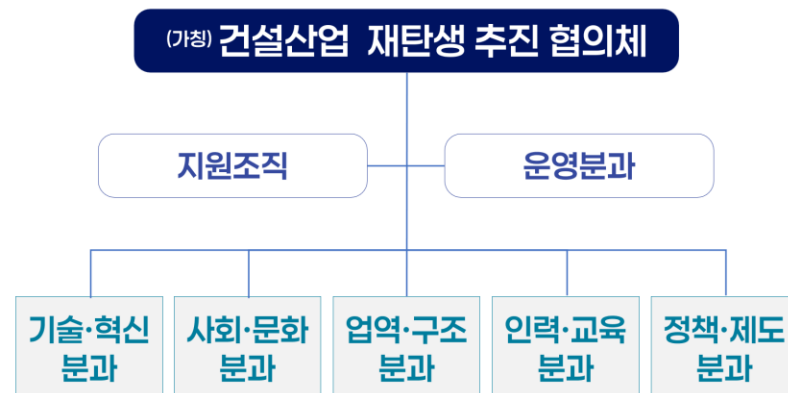
■ [공공] 건설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건설산업 산업 가치, 산업체계, 시장·상품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지속성·일관성 확보
- 법률 통합·체계화, 건설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수립 정책 간 정합성 조정,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촉진, 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건설·디지털 전환 촉진 등
- ① 주무부처(국토교통부)의 **역할·책임 격상**(부총리급)
- ②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기구**(국가건설산업 정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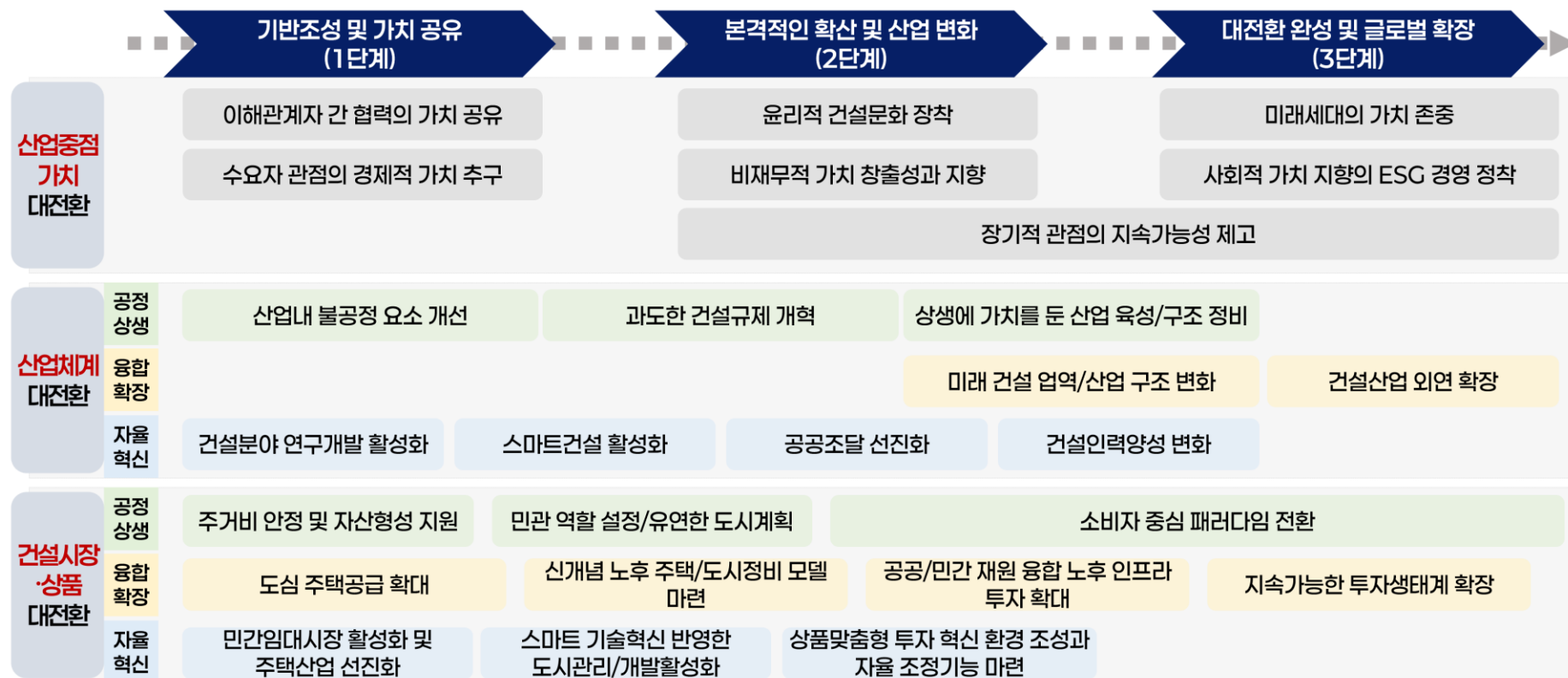
■ [민간] 건설산업 재탄생 추진 협의체 구축

- 건설산업 리버스를 위한 공급주체 참여 및 협력의 구심점
- 설계·ENG, 전문건설, 종합건설 등 **汎산업 협회 및 단체** 참여
- 건설산업 환경 변화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중심의 「(가칭) **건설산업 재탄생 추진 협의체**」(행정기관위원회)」



■ 汎정부·산업 컨트롤 타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가칭) **민관협력 건설산업 재탄생 위원회**」 설립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세부과제(안)



■ 건설산업의 근본적 쇄신과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으로 재탄생

- 책무를 다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4Re(Responsible, Revolutionary, Reliable, Resilient) 산업 모습 구현



"Be the change that you wish to see in the world."

- Mahatma Gandhi -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건설 Rebirth TF 리더 손태홍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thsohn@cerik.re.kr	성유경 연구위원 sungyk@cerik.re.kr	최수영 연구위원 sooyoung.choe@cerik.re.kr
박희대 연구위원 hpark@cerik.re.kr	정수완 부연구위원 swchung@cerik.re.kr	이규은 부연구위원 gelee@cerik.re.kr